시사진단 최근 흉악범에 대한 형벌강화에 따른 고찰

법만능주의만이 최선인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최근의 지존파와 온보현 사건은 그들의 살인행위가 잔인했다는 정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인 대상자를 무고한 불특정 다수인으로 설정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온 국민을 경악시키기에 충분했다. 거리에 자동차가 홍수를 이루고 철단의 컴퓨터가 보편화된 오늘날에 우리의 주변에서 그러한 끔찍한 살인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놀라고 분노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모두가 그들만의 잘못이고 우리와 사회의 책임이 없는가?

각 신문과 방송 그리고 관계기관에서는 나흘대로의 진단과 대책을 신속하게 내놓기도 했으나 그 중에서도 법학을 전공한 필자의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이 검찰에게 반인륜적 살인범들을 법적 최고형으로 처벌하라고 지시한 것과 법무부가 범죄인에 대하여 온정주의적 처벌을 지양하고 중형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그 같은 지시와 대처들은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의 실행여부와 실행의 효과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논하여 지지 않았었다.

형법적으로 볼 때 그러한 一罰百戒식의 처벌은 일반예방적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을 과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형벌의 무서움과 고통을 미리 알려주고 겁을 주어 일반인들이 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범행으로부터 얻는 쾌락 보다는 나중에 받게 될 형벌의 고통이 훨씬 크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계산에 따라 범행을 억제할 것을 예상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과대평가할 때에는 형벌이 무겁고 잔인할수록 그 효과가 커질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원시적이고 범죄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하여 요즈음의 문명국가에서는 사라진 공개처형이라는 제도도 바로 이러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최근에 15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도(완화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같은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 의하면 이러

◇계속되는 흉악범죄로 정부는 3범 이상 자에게는 종신형을 처한다는 이른바 '3진법'을 구상중이다(사진 뉴스메이커)

한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효과가 훨씬 적으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증되지 않고 있다. 일례를 들어보면, 어떤 나라에도둑이 성행하여 그 대처에 골몰하던 중에 절도범을 공개처형 하기로 결정하였다.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방에 공고를 하여 많은 사람이 그 장면을 직접 보도록 유도하였다. 관계당국자의 바람속에는 그 참혹한 장면을 보게 되면 누구나가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실제 많은 사람이 처형장에 모였으며 분위기가 어수선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조밀하게 모인 그 곳에는 소매치기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예는 가상된 것이지만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의 설효성을 의문시하는 예이다. 간간이 '시범케이스'로 행하여지는 과중한 형벌권의 행사는 오히려 범죄인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재수없음을 한탄하여 형벌권을 불신하게 하고 또한 도리어 수사기관의 범죄인에 대한 인권유린을 초래하기가 쉽다. 형사정책적으로는 엄중하고 잔인한 형벌 보다는 범죄인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체포하여 일반인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힌다고 하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소외된 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해야

예방적 차원의 형집행 효과는 불투명

매스컴들이 살인범들의 황당한 동기와 기괴 표현을 흥깊없이 생생하게 안방에 전달했다는 사실이 살인범들을 영웅시하고 모방범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필자는 보도를 접하면서 그것과는 다른 면에서 그러한 사건 보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매스컴들은 그 사건을 경쟁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마치 그들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주로 부각시켰지만 요즈음에는 사회환경적 요인의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범죄가 없는 사회는 기대할 수도 없다고 하지만 지금같이 살벌한 사회적 여건속에서는 각종의 흉악범들이 창궐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럴수록 품위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그들을 사회의 구석으로 더욱 내몰 것이고 그들과 담쌓기에 열중할 것이다. 그것은 이번보다도 더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강요할 것이다.

법은 사회의 산물이므로 사회를 반영한다. 거꾸로 법이 혼탁한 사회를 정화시키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법을 통해서 그것도 중형 위주의 법을 통해서 범죄를 비롯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법만능주의적 사고는 자칫 범죄의 밑바닥에 존재하는 위와같은 사회적인 병패들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기 쉽다. 국가는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공평한 과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정책을 더욱 확실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강 진 철
〈법학박사, 강원대 강사〉

'3진법' 추진 배경

최근 '지존파 연쇄살인사건'과 '부비자 납치살인사건'등의 큰 사건들이 계속 터져나왔다. 이에 지난 9월30일 최형우 내무장관은 전국 경찰지휘관 회의를 갖고 앞때른 엄기적인 강력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 흉악범을 엄구 격리시키는 이른바 '3진법(3범이상 종신형)'의 도입을 법무부와 검찰에 적극 건의해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몇년간 강력범죄 발생건수를 보면 91년과 93년사이에 살인이 595건에서 808건, 강도가 3천2백89건에서 3천7백30건, 강간이 3천6백69건에서 5천2백98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사건발생과 대처과정에서도 경찰의 기본적인 치안유지 활동과 수사허점은 여실히 드러났다. 한 예로 '지존파'일당이나 온보현(폭력 등 전과13범)은 전국을 누비며 살인행각을 일삼을 때마다 단 한번의 검문검색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경찰의 허점은 범죄수사 종사자가 16.6%인데 비해 시국경찰은 19%나 되는 기형적인 인력구조와 비합리적 인사운영 외에도 부족한 예산지원을 들수 있다. 또한 장비, 시스템의 부족, 노후화에 따른 인적·물적 문제 등도 빼놓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순경 이상 경찰총장에 이르는 경찰은 모두 9만5백여명(전·의경 제외)으로 1인당 담당 국민수는 4백70명에 이른다. 이것은 영국(3백97명), 프랑스(2백68명), 이탈리아(2백88명), 미국(3백48명)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인 것이다. 이런 현실속에서 지금 정부는 '3진법' 입법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강단시론

책 읽기의 즐거움

김 종 회
〈문리대교수 국문학〉

책은 인생의 나침반이라는 말이 있다. 문학작품을 일러 인생의 지라책이라고 하는 표현법도 있다. 어느 곳에 험한 태산준령이 있고 어느 곳에 아름다운 호수가 있으며 어느 길을 택하는 것이 가장 평탄한 바른 길인가를 알려 주는 정보가 책 속에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책 속에 길이 있다고 단정하여 말한 바 있다.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어투는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한 항목이 된다. 간추려서 말하자면 책을 읽는 일이야 말로 우리의 삶에 비길 데 없는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뜻이다.

물론 아무 책이나 두서없이 읽어서는 안된다. 가치있는 책을 계획성 있게 읽어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톨스토이는 1년을 두고 매일같이 준행할 치밀한 독서계획을 세운 바 있다. 상상해 보라. 그 제목으로 그 내용의 넓이와 깊이를 짐작할만한 책들이, 주인의 손때묻은 모습으로 줄지어 꽂혀있는 서가를—. 아무도 그를 쉽시라 낮춰볼 수 없을 터이다. 기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표면적 사실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세계가 얼마만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가를 만해주는 객관적 증빙이 거기에 있음이 중요하다. 만약 역사에 기록된 훌륭한 사람들의 명민한 판단력과 돌올한 언격이 서술된 책이라면, 서가의 주인은 그 위인들을 사공을 넘어서는 유능한 조력자로 거느리는 셈이 된다.

책은 통하여 단단한 논리로 무장한 사람이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을 터이고, 그러해야 플래카드의 시대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시대인 오늘날에 있어서 비판자이기를 넘어서서 설득력있는 대안의 창출자로 설 수 있게 될 것으로 믿는다.

지금까지 왜 책을 읽어야 하며 또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기술하였으되, 정작 책을 읽어내는 능력의 배양이 잘에서 꺼어난 바이런의 경우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리 없다. 엄밀히 말해서 읽기 능력의 증진에는 왕도가 없을 터이다. 책을 읽는 사람 각자가 잘대량의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수준과 방법을 확립하는데는, 미리 주어진 모범답안이 부사통과로 적용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그 능력의 질적 함량에 있어서도 두루 통용될 수 있는 객관적 준거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한적인 요소가 상존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한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면서 여기서 읽기 능력의 향상을 향한 몇가지의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좋은 습관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책을 통하여 유익과 즐거움을 걷어올리기 위한 전초전에 해당하며, 책읽기를 생활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대학가에서 조차 냉방과 주점 정하게 됨은 불금 보듯 뻔한 일이다.

우리는 각자 개인이 자기의 서가를 마련해야 한다. 호랑이를 그리려다 못그려도 개라은 그릴 수 있듯이, 우선 신실한 독서계획을 세워 그것이 우리의 주요한 삶의 목표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조건과 환경을 조정해야 한다. 아울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책을 읽는 즐거움을 체득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학자가 삼일동안 책을 읽지 않으면 자신의 말속에서 운치를 찾아볼 수 없게되고, 거울을 통하여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도 지겹게 된다'고 한 중국 성현의 이야기를 우리의 독서습관 배양에 유익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리라.

책을 통하여 단단한 논리로 무장한 사람이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을 터이고, 그러해야 플래카드의 시대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시대인 오늘날에 있어서 비판자이기를 넘어서서 설득력있는 대안의 창출자로 설 수 있게 될 것으로 믿는다.

지금까지 왜 책을 읽어야 하며 또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기술하였으되, 정작 책을 읽어내는 능력의 배양이 잘에서 꺼어난 바이런의 경우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리 없다. 엄밀히 말해서 읽기 능력의 증진에는 왕도가 없을 터이다. 책을 읽는 사람 각자가 잘대량의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수준과 방법을 확립하는데는, 미리 주어진 모범답안이 부사통과로 적용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그 능력의 질적 함량에 있어서도 두루 통용될 수 있는 객관적 준거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한적인 요소가 상존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한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면서 여기서 읽기 능력의 향상을 향한 몇가지의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좋은 습관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책을 통하여 유익과 즐거움을 걷어올리기 위한 전초전에 해당하며, 책읽기를 생활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대학가에서 조차 냉방과 주점

가치있는 책의 대명사는 고전이다. 한시적인 삶의 경과과정을 넘어서는 생명력이 없이는 고전의 반열에 오를 수 없다. 변동하는 시대의 현주소와 진로를 반영하고 있음으로써 폭넓게 읽히는 책은 베스트셀러라는 이름으로 호명된다. 이 두가지는 모두 일방적으로 폄하될 수 없는 잉여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레이몬드 위버교수에게 어느 학생이 "이 베스트셀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 교수가 "단테의 「신곡」을 읽었는가. 이는 수십세기에 걸친 베스트셀러이다"라고 반문했다는 고사가 있어, 우리로 하여금 여러가지를 생각케 한다.

단테'신곡'=최장의 베스트셀러

옛우리 선조들은 학습을 시작하면서 맨 먼저 '천자문'부터 배웠다. 이는 단순히 한자를 익히기 위한 기초공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유과정을 이치와 섭리에 근접하는 길을 모색하는 교과과정을 포괄하고 있다.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가을이 되면 거두고 겨울에는 저장한다'와 같은 귀절들이 표방하듯이, '천자문'은 네자의 음절로 된 한시 이백오십구가 묶여진 책이다. '영이야 철수야 놀자'와 같은 낱말들로 된 교과서에 의지하여 문장의 의미구조를 배우기 시작한 우리 세대의 패턴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다양한 삶의 양식을 그대로 투사하고 있다 하겠거니와, 우리는 결국 한걸음 뒤로 물러선 사고훈련의 공백을 스스로 채울 읽음으로써 메꿀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체로 일본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원에서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연세나 손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휴대하고 다닌다고 칭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들이 읽고 있는 책은 기껏해야 생활정보·교양도서·중간소설 같은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책들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 국민과, 학교 졸업과 동시에 손에서 책을 놓아버리는 국민 사이의 격차가 사간의 흐름과 더불어 회복하기 어려운 간극을 노은 늘고 서점은 줄어드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사람들의 여가생활이나 취미생활도 매우 복잡다단해져서, 옛날처럼 신상조사서의 취미란에 '독서'가 단골메뉴로 등장하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 그럴수록 참된 이성과 지혜의 주인이기를 원하는 이는 하루에 한때라도 책을 손에 들지 않고서는 지적 공복감을 느끼게되는 지경에까지 자신의 정신적 차원을 끌어올리려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급박하고 파란많은 생애를 살면서도 안중근의 사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레토릭을 남겨 놓았다.

다음으로 책을 읽되 좋은 책을 골라 읽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보다 깊이있게 음미해 보아야 하리라 싶다. 산업사회의 정보 홍수라는 용어가 실감날 만큼 엄청난 수량의 책이 출판되고 있다. 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책의 분량과 비교한다면,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라 할수있을 만하다. 고전이나 베스트셀러나 하고 우리가 앞서서 언급한 논의는 이 양적 팽창에 대응하는 선별적인 감식능력과 관련된다. 때로는 어느 분야에서 이런 책을 선택해야 할지 실로 난감한 지경에 처할 것이다. 이 경우에 우리는 가급적 전문적인 독자, 곧 비평가들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다고 하겠다. 별로 큰 가치도 없는 책에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비경제적인 책읽기를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독·다작·다상량의 길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고 좋은 책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찌기 당송팔대가 중의 한사람인 구양수는 다독(多讀), 다작(多作), 다상량(多商量 : 많이 생각하라)이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밝힌 바 있었거니와, 많이 읽는다는 것은 비단 글을 쓰는 일을 전문으로 하지않는 사람에게도 폭넓은 지식과 세상을 보는 균형잡힌 시각을 갖여하는데 가장 좋은 밑거름이 되지 않겠는가.